

## 암 통증 완화요법과 전략 세미나 : 홍보분과위원회 보고



1994년 8. 22~23일까지 가톨릭의대 대학원 강의실과 성바오로병원 7층 강당에서 2일간 세계보건기구의 암과 완화치료부의 책임자인 Dr. Jan Stjernsw-ard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.

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는 「암통증 완화치료 전략」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Dr. Jan Stjernsw-ard는 주제 강의를 통해 『세계보건기구는 암통증을 관리하는데 약물이 가장 중요하며 사용이 용이한 방법이라는데 합의했고 현재의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전세계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』고 밝혔다.

Dr. Jan Stjernsw-ard는 『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암통증 완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』며 『이들에게 암통증 관리시 진통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』고 말했다.

또한 『세계적으로 약물남용 및 의존성에 대한 공포심이 지나쳐 구강용 물편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 문제』라며 『암을 예방, 조기진단,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작지만 모든 암환자에게 말기간호를 통해 통증을 완화

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』 강조했다.

Dr. Jan Stjernsw-ard는 『암통증 완화를 위한 정책과 기획이 국가적 차원에서 세워져야 하며 현재 캐나다, 프랑스, 일본, 핀란드 등 10개국만이 확실한 국가정책을 갖고 있다』며 『마약의 관리통제에 관한 제도를 완벽히 구비해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보건의료요원이 처방, 보관, 투여하도록 해야 할 것』이라고 말했다.

